

‘ 오직 감사함 뿐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소식

‘ 위로의 심방 ’



안식년 귀국 전,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홀로 지내고 있는 미야키 상과 카쿠타니 상을 찾아가,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저희에게 미야키 상은 ‘이웃들 가운데에도 나처럼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허전하다,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오히려 저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기쁨의 심방 ’

지난 4월, 하나님께서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인 하루토군을 만나고 왔습니다. 역시 안식년을 앞두고, 니시카와 상의 가정을 찾아가 하루토를 위한 축복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민하를 기다리고 품에 안았듯, 오랜 기간 자녀를 기다렸던 니시카와 상의 얼굴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저희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기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이를 위해 니시카와상 부부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고, 특히, 하루토군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간사이 지역 사역자 친목회 ’



지난 5월 30일. 일본 홀리네스 교단 간사이 지역의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번의 춘기 성회에서 황명아 선교사가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했었는데 그 간증을 들은 일본의 목사님들이 저희가 안식년을 가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며 계획된 모임이었습니다. 저희가 카코가와에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반갑고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각 교회를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 전도지 기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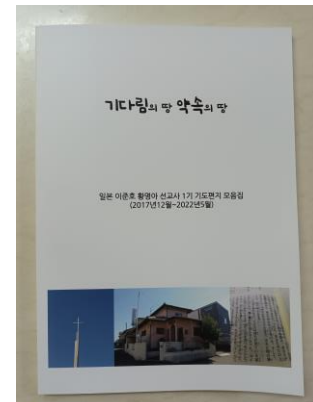
일본 홀리네스 교단은 매달 전도지를 발행합니다.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키보우지(きぼう誌)’라는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는 일본 홀리네스 교단의 각 교회가 돌아가며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호는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지의 표지부분에는 이준호 선교사가 짧은 메시지를 전하였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는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의 성도인 니시무라 상의 간증을 실게 되었습니다. 전도지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 주변 집집마다 다니며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는 전도를 했습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1기 선교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 8일 한국에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니시무라 상이 직접 공항까지 운전해 주셔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입국하는 날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어서, 자가격리 없이 대구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간 귀국하지 못해서인지,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감사함도 있었지만, 약간의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동안 저희가 보내 드렸던 기도편지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첫 기도편지부터 다시 읽고, 편집하면서 그 동안 저희가 걸어왔던 선교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걸을 수 없었던 길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며 안식년 이후의 선교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안식년 기간의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의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설교 시간에는 이준호 선교사가 사전 녹화한 설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월 2회 정도는 일본인 목사님들이 줌(zoom)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 문화 깊이 알아보기 - '일본의 선거'

지난 6월 1일은 한국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계속해서 선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선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반인 내각총리대신(수상)이 국회에서 선출되며 총리가 사실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총 717명 전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총리는 간접선거로 선출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만, 일본은 국민이 총리를 직접 뽑지는 못합니다. 일본의 총리는 집권당의 총재가 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집권당의 총재로 선출된다면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에 있었을 때,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의 한 성도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투표방식 또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후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유권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기명투표'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명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름을 연필로 직접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채택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름을 잘못 적어서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유권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선거 포스터에는 자신의 이름을 쉬운 한자나, 히라가나로 적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1.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게 하심을 감사
2. 안식년 기간의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3. 안식년 기간 영육간의 재충전을 위해
4. 안식년 기간 후원교회 개발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해
5. 안식년 기간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6. 2022년 7월의 사역을 위해

☎ 후원안내

- 연락처 : 080-4188-2604
070-4226-3122
- 이메일 : directed@naver.com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529-49085-948421
예금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